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장 근 주* · 심 소 연**

본 연구는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규명을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A, B 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부 재학생들(건반악기, 성악, 관현악 전공 1~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연주자신감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년, 전공, 전공경력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주자신감은 전공경력에서 부분적(연주활동자신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성요인들은 연주자신감의 하위구성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주제어 : 자기효능감, 연주자신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연주활동정체감

차 례

I. 서 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
3.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관계

IV. 결론 및 제언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I. 서 론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연주를 앞두고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며, 평소 자신의 연주활동과 연주기술의 완성도에 있어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유명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는 연주 전과 연주 중, 연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 받는다고 말해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유명 피아니스트인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 1903-1989)는 무대공포증으로 몇십 년 동안 무대연주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연주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이보영, 2003). 또한, 우리나라 음악대학 교수와 강사 대상의 소미희(2001)의 연구에서는 연주 시 87.2%가 떨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명 음악가와 비교적 전문 연주자라 할 수 있는 음악대학 교수나 강사들의 연주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도가 이러하니, 상대적으로 연주경험이 적고 연주기술 수준 및 숙련도가 낮은 대학 음악 전공자들이 느끼는 연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생각보다 더 클 것이다. 김준모(2008)의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 104명 중 101명이 연주 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김보라(2011)의 연구에서는 공개적 연주를 하는 경우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음악대학 연주전공생 중 8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학 음악 전공자들이 공개적 연주에서 자각하는 연주 불안감이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 음악 전공자들이 연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주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선 두려움을 일으키는 연주에 대한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제거함과 동시에,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조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연주자의 심리변인 중 우울과 연주스트레스 변인 모두가 연주만족도(독주, 앙상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연주자의 우울, 스트레스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연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심리는 성공적인 연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심리적 변인인 연주불안이나 연주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반적 과제수행능력에 대한 확실성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 바탕이 되는 믿음이 바로 자기효능감이다. 연주 외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특정과제, 필요행동 등의 수행 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연주수행에 대한 연주자의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도는 낮아지고, 이는 곧 연주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지애(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주자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연주자들의 연주불안 지각 정도는 낮아진다. 즉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연주자들의 연주불안 지각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곧 연주자신감의 회복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연구는 본 논문의 취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자기효능감과 연주의 관계에 관해 이뤄진 연구는 크게 음악교육과 관련된 연구(이지연, 2011; 홍순화, 2011)와 음악치료와 관련된 연구(고민정, 2008; 권영혜, 2009)의 두 부류로 나뉜다. 음악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연주발표경험, 악기 연주 집단음악활동 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즉흥연주와 관련한 음악치료활동,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의 특징은 연주가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아동과 초, 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에 집중되었다. 김지애(2012)의 연구도 음악전공 연주자들을 위한 자기효능감과 연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 음악전공 연주자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적 특성(학년, 전공,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주자신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4년제 A, B 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부 재학생 중, 건반악기, 성악, 관현악 전공 1~4학년생들로 선정하였고, 그 중 총 224명을 무선으로 다단계 군집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224명 모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으며, 배부완료 후 수거한 설문지 중, 설문에

대한 응답이 이중 기입되었거나 일부 문항이 누락, 응답 내용이 극히 부실했던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처리된 실제 대상자 수는 총 208명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36	17.3
	2학년	50	24.0
	3학년	73	35.1
	4학년	49	23.6
전공	건반악기	77	37.0
	성악	58	27.9
	관현악	73	35.1
전공경력	5년 미만	19	9.1
	5~10년 미만	92	44.2
	10~15년 미만	68	32.7
	15년 이상	29	13.9
합 계		208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연주자신감의 총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일반적 특성은 배경변인으로 하위 구성내용은 학년과 전공, 전공경력으로,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인으로 하위 구성내용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주자신감은 종속변인으로 하위 구성내용은 무대연주자신감, 연주활동자신감, 연주활동정체감이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표 2>는 보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성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합계
배경변인	일반적 특성	학년, 전공, 전공경력	3	3
독립변인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17	23
		사회적 자기효능감	6	
종속변인	연주자신감	무대연주자신감	6	18
		연주활동자신감	6	
		연주활동정체감	6	
총 문항 수 합계			44	

1) 설문지 구성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구대상의 학년, 전공, 전공경력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문항의 하위 구성내용은 학년과 전공, 전공경력으로 구성하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하위 구성내용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해 Sherer, Maddux 등(198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Hillman이 개발하고 우희정(1993)과 장근주(2011)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대학생에 맞게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주자신감

연주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Vealey(1986)가 개발하고 이효민(2009)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 스포츠 자신감 검사를 토대로 한 정세진(2010)의 무용자신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 이것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하위 구성내용은 무대연주자신감, 연주활동자신감, 연주활동정체감을 포함한다.

2)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표 3>은

자기효능감 설문지, <표 4>는 연주자신감 설문지의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기효능감 설문지와 연주자신감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 모두 모든 문항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나,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성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일반적 자기효능감	1 ~ 17	17	.872
사회적 자기효능감	18 ~ 23	6	.724
전체 자기효능감		23	.875

<표 4> 연주자신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성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무대연주자신감	1 ~ 6	6	.855
연주활동자신감	7 ~ 12	6	.842
연주활동정체감	13 ~ 18	6	.908
전체 연주자신감		18	.916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dow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세부적인 통계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요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즉 일반적 응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인 대학생 음악 전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도구인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 척도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일반적 특성(학년, 전공,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학년, 전공, 전공경력)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1)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학년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이 3.40, 2학년이 3.37, 4학년이 3.3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2학년이 3.37으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이 3.35, 1학년이 3.33, 4학년이 3.27로 나타났다. 전체 자기효능감은 3학년이 3.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이 3.38점, 2학년이 3.37점, 4학년이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일반적 자기효능감	1학년	36	3.40	.627	.356	.785
	2학년	50	3.37	.520		
	3학년	73	3.43	.483		
	4학년	49	3.33	.593		
	합계	208	3.39	.543		
사회적 자기효능감	1학년	36	3.33	.667	.239	.869
	2학년	50	3.37	.687		
	3학년	73	3.35	.673		
	4학년	49	3.27	.595		
	합계	208	3.33	.654		
전체 자기효능감	1학년	36	3.38	.569	.360	.782
	2학년	50	3.37	.481		
	3학년	73	3.41	.457		
	4학년	49	3.31	.531		
	합계	208	3.37	.499		

2)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관현악 전공자가 3.44으로 가장 높았고, 건반악기 전공자가 3.39, 성악 전공자가 3.32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건반악기 전공자가 3.39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악 전공자가

3.36, 관현악 전공자가 3.25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기효능감은 건반악기 전공자가 3.39, 관현악 전공자가 3.3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악 전공자가 3.33점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일반적 자기효능감	건반악기	77	3.39	.526	.807	.448
	성악	58	3.32	.616		
	관현악	73	3.44	.498		
	합계	208	3.39	.543		
사회적 자기효능감	건반악기	77	3.39	.702	.854	.427
	성악	58	3.36	.632		
	관현악	73	3.25	.620		
	합계	208	3.33	.654		
전체 자기효능감	건반악기	77	3.39	.499	.319	.728
	성악	58	3.33	.540		
	관현악	73	3.39	.468		
	합계	208	3.37	.499		

3)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경력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15년 이상 경력자가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10~15년 미만 경력자가 3.40, 5~10년 미만 경력자가 3.34, 5년 미만 경력자가 3.2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5년 미만 경력자가 3.43으로 가장 높았으며, 10~15년 미만 경력자가 3.36, 5~10년 미만 경력자가 3.31, 15년 이상 경력자가 3.28로 나타났다. 전체 자기효능감은 15년 이상 경력자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10~15년 미만 경력자가 3.39, 5~10년 미만 경력자가 3.33, 5년 미만 경력자가 3.29로 나타났다.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일반적 자기효능감	5년 미만	19	3.24	.711	2.310	.077
	5~10년 미만	92	3.34	.554		
	10~15년 미만	68	3.40	.473		
	15년 이상	29	3.60	.496		
	합계	208	3.39	.543		
사회적 자기효능감	5년 미만	19	3.43	.672	.287	.835
	5~10년 미만	92	3.31	.614		
	10~15년 미만	68	3.36	.682		
	15년 이상	29	3.28	.724		
	합계	208	3.33	.654		
전체 자기효능감	5년 미만	19	3.29	.620	1.268	.286
	5~10년 미만	92	3.33	.514		
	10~15년 미만	68	3.39	.453		
	15년 이상	29	3.52	.457		
	합계	208	3.37	.499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

1) 학년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무대연주자신감은 1학년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2.98, 3학년이 2.87, 2학년이 2.74로 나타났다. 연주활동자신감은 4학년이 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이 3.11, 3학년이 3.11, 2학년이 3.07로 나타났다. 연주활동정체감은 1학년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3.62, 3학년이 3.61, 2학년이 3.52로 나타났다. 전체 연주자신감은 1학년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3.26, 3학년이 3.20, 2학년이 3.11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연주자신감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학년에 따른 연주자신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무대연주 자신감	1학년	36	2.99	.859	1.283	.281
	2학년	50	2.74	.617		
	3학년	73	2.87	.654		
	4학년	49	2.98	.687		
	합계	208	2.89	.694		
연주활동 자신감	1학년	36	3.11	.784	.158	.925
	2학년	50	3.07	.587		
	3학년	73	3.11	.651		
	4학년	49	3.16	.721		
	합계	208	3.11	.674		
연주활동 정체감	1학년	36	3.79	.863	.784	.504
	2학년	50	3.52	.641		
	3학년	73	3.61	.783		
	4학년	49	3.62	.958		
	합계	208	3.62	.810		
전체 연주자신감	1학년	36	3.29	.673	.802	.494
	2학년	50	3.11	.490		
	3학년	73	3.20	.586		
	4학년	49	3.26	.656		
	합계	208	3.21	.597		

2) 전공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른 무대연주자신감은 성악 전공자가 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반악기 전공자가 2.88, 관현악 전공자가 2.78로 나타났다. 연주활동자신감은 건반악기 전공자가 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악 전공자가 3.10, 관현악 전공자가 3.07로 나타났다. 연주활동정체감은 성악 전공자가 3.73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현악 전공자가 3.61, 건반악기 전공자가 3.55로 나타났다. 전체 연주자신감은 성악 전공자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 건반악기 전공자가 3.20, 관현악 전공자가 3.15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연주자신감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전공에 따른 연주자신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무대연주 자신감	건반악기	77	2.88	.647	2.137	.121
	성악	58	3.03	.787		
	관현악	73	2.78	.653		
	합계	208	2.89	.694		
연주활동 자신감	건반악기	77	3.16	.659	.387	.680
	성악	58	3.10	.767		
	관현악	73	3.07	.615		
	합계	208	3.11	.674		
연주활동 정체감	건반악기	77	3.55	.792	.877	.418
	성악	58	3.73	.878		
	관현악	73	3.61	.774		
	합계	208	3.62	.810		
전체 연주자신감	건반악기	77	3.20	.547	.865	.423
	성악	58	3.29	.670		
	관현악	73	3.15	.589		
	합계	208	3.21	.597		

3) 전공경력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경력에 따른 무대연주자신감은 15년 이상 경력자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10~15년 미만 경력자가 2.88, 5~10년 미만 경력자가 2.86, 5년 미만 경력자가 2.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주활동자신감은 15년 이상 경력자가 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 미만 경력자가 3.10, 10~15년 미만 경력자가 3.04, 5년 미만 경력자가 2.9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주활동자신감은 Scheffe 사후검증 방법을 통해, 두 집단의 차이를 2차적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전공경력 15년 이상(d)이 5년 미만(a)과 10~15년 미만(c)보다 큰 정도는 유의확률이 .022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연주활동정체감은 15년 이상 경력자가 3.88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미만 경력자가 3.62, 5~10년 미만 경력자가 3.59, 10~15년 미만 경력자가 3.55로 나타났다. 전체 연주자신감은 15년 이상 경력자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 미만 경력자가 3.18, 10~15년 미만 경력자가 3.16, 5년 미만 경력자가 3.11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전공경력에 따른 연주자신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무대연주 자신감	5년 미만	19	2.75	1.014	.933	.425	
	5~10년 미만	92	2.86	.673			
	10~15년 미만	68	2.88	.659			
	15년 이상	29	3.07	.588			
	합계	208	2.89	.694			
연주활동 자신감	5년 미만(a)	19	2.94	.884	3.288*	.022	a,c<d
	5~10년 미만(b)	92	3.10	.687			
	10~15년 미만(c)	68	3.04	.622			
	15년 이상(d)	29	3.45	.496			
	합계	208	3.11	.674			
연주활동 정체감	5년 미만	19	3.62	.747	1.208	.308	
	5~10년 미만	92	3.59	.875			
	10~15년 미만	68	3.55	.749			
	15년 이상	29	3.88	.762			
	합계	208	3.62	.810			
전체 연주자신감	5년 미만	19	3.11	.737	2.268	.082	
	5~10년 미만	92	3.18	.610			
	10~15년 미만	68	3.16	.576			
	15년 이상	29	3.47	.450			
	합계	208	3.21	.597			

*p<.05

3.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관계

1) 자기효능감 요인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 요인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과는 $r=.539(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과는 $r=.335(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과는 $r=.548(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1> 자기효능감 요인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전체 자기 효능감	무대 연주 자신감	연주 활동 자신감	연주 활동 정체감	전체 연주 자신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1						
사회적 자기효능감	.428(**)	1					
전체 자기효능감	.951(**)	.687(**)	1				
무대연주 자신감	.278(**)	.223(**)	.300(**)	1			
연주활동 자신감	.501(**)	.318(**)	.512(**)	.685(**)	1		
연주활동 정체감	.537(**)	.286(**)	.530(**)	.361(**)	.522(**)	1	
전체 연주자신감	.539(**)	.335(**)	.548(**)	.808(**)	.878(**)	.789(**)	1

**p<.01

2)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1)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30.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4.728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B=.484$, $p<.001$)은 연주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B=.128$, $p<.05$)은 연주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2>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²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012	.239		4.233	.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533	.071	.484	7.509***	.000	44.728***	.000	.304
사회적 자기효능감	.117	.059	.128	1.983*	.049			

***p<.001

(2) 자기효능감이 무대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무대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9.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0.210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B=.224, p<.01)은 무대연주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무대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3> 자기효능감이 무대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²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468	.318		4.622	.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286	.094	.224	3.035**	.003	10.210***	.000	.091
사회적 자기효능감	.135	.078	.127	1.726	.086			

p<.01, *p<.001

(3) 자기효능감이 연주활동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연주활동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26.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6.784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B=.447, p<.001)은 연주활동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활동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4> 자기효능감이 연주활동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798	.277		2.877	.004			
일반적 자기효능감	.556	.082	.447	6.744***	.000	36.784***	.000	.264
사회적 자기효능감	.130	.068	.126	1.902	.059			

***p<.001

(4) 자기효능감이 연주활동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연주활동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29.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2.256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B=.507, p<.001)은 연주활동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활동정체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5> 자기효능감이 연주활동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770	.327		2.355	.019			
일반적 자기효능감	.757	.097	.507	7.799***	.000	42.256***	.000	.292
사회적 자기효능감	.085	.081	.069	1.059	.291			

***p<.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수집한 설문 조사 자료의 처리 및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년, 전공, 전공경력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예체능계열은 연령별, 성별, 학업 성취도 등의 장독립적 인지 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김희수와 홍성훈(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대학교의 기악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지현과 오지향(2011)의 자기조절학습 성향 연구에서 동기조절요인의 성취가치가 가장 높고, 자아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개개인이 속한 일반적 특성을 떠나, 각자가 그간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과제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 또는 횟수 등의 누적에 만들어진 결과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공경험 증진전략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신순정(2007)은 성공경험 증진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부 교수전략 중에서도 특히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이 자기효능감을 가장 높게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영미(2008)도 성공경험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신감을 생성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하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적용대상에 차이는 있으나,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성공경험 증진전략, 특히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공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제 난이도를 재구조화하여 등의 다양한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주자신감은 학년, 전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경력에 따라서는 연주활동자신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간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연주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 또는 횟수의 누적, 콩쿨의 수상 여부 등의 결과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경은(2012)의 연구에서는 연주불안의 심리적 증상으로 연주자가 과거 연주의 잘못이나 실수에 매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암시하는 부정적 암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연주에서의 조급함, 불안과 실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연주자의 연주자신감을 향상시키

는 데, 심리적 요인인 연주불안의 완화와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연주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주불안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파악과 이를 완화, 해결할 수 있는 다방면적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이지연(201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악 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발표나 연주를 통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대학 음악 전공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연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연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성요인들은 연주자신감의 하위구성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의 하위구성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 안의 작은 성공, 성취의 체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평소 스스로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대학 음악 전공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연주(무대연주 또는 일상연주 등)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연주자신감 증진을 위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과 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음악 전공자들에게 대학에서의 교육, 수련 기간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연주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의 가치는 더욱 클 수 있다. 이에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이 대다수의 대학 음악 전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연주불안 완화와 연주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장차 성공적인 연주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 증진 관련 교육의 제공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정당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8). 우울성향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대한 즉흥연주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혜 (2009). 인지행동적 즉흥연주 음악치료활동이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단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라 (2011). 연주불안감에 대한 고찰과 조사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8). 성공경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모 (2008). 연주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에 관한연구 : 성악 연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애 (2012). 자기효능감과 시간적 거리가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 오지향 (2011). 2x2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성향에 관한 연구: 기악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9(3), 85-104.
- 김희수 · 홍성훈 (2006).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인지양식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37(2), 2006.
- 소미희 (2001). 대중연주상의 장애 요인에 관한 조사. 서원대 예술문화 논총, 10, 1-8.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 신순정 (2007). 게임기반학습에서 학습자의 성공경험증진 교수전략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1993).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5-25.
- 이경은 (2012). '연주불안'이 무대 연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철학적 치유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영 (2003). 음악연주에 있어 무대 공포증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 피아노 연주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1). 성악 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민 (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문화수준이 무용자신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근주 (2011). 음악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 동기와의 관계. 음악교육연구, 40(2), 53-82.

정세진 (2010). 대학 무용전공자의 성취목표성향이 무용수행만족도와 무용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명희 (2010). 연주자의 심리적 특성과 연주관련특성이 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순화 (2011). 악기연주중심의 집단음악활동이 대안학교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Hillman, S. J. (1986). Measuring self-efficacy: preliminar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herer, M., et al.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Vealey, R. S.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ABSTRACT

**A Correlation between Undergraduate
Music Majors' Self-efficacy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Jang, Gun-Joo · Sim, So-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music majors' self-efficacy on their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first-year through fourth-year students majoring in keyboard, voice and orchestra in A and B women's universiti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domains, that is, general characteristics, a background variable; self-efficacy, an independent variable;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a dependent variabl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First, as for self-efficacy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ll of grade, major, and major experienc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as for confidence in performanc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nly major experie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self-efficacy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and thu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elf-efficacy, the higher the confidence in performance. In addition, the sub-domain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domains of confidence in performance.

key words :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Performance activities identity

투고일: 2013년 8월 31일, 심사(수정): 9월 27일(10월 15일), 게재확정일: 11월 1일